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실크로드여행사
불교성지순례 전문
02)720-9600

佛教新聞

대승투어
daeseungtour
신심깊은 불자들의 여행사
여법한 순례
품격있는 여행
☎1577-0206 www.대승투어.com

1960년 1월 1일 창간 주2회 발행
불기 2558년 4월 23일 (2014년 / 단기 4347년 음력 3월24일)
ibulgyo.com
대표전화 (02)730-4488 제3004호 수

"제발 살아오길,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진도 세월호 침몰 통탄
실종자 무사생환 '기원'
전국 사찰서 기도 정진

종단, 구호봉사대 급파
사고현장 지원활동 총력

'제발 돌아와다오' 지난 18일 진도 팽목항. 실종자 가족들이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며 아들과 딸, 손자 손녀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다. 진도=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세월호 침몰 참사 실종자의 무사귀환을 위해 불교계 전체가 간절하게 정성을 모으고 있다. 조계종은 사건발생 직후 긴급구호봉사대를 파견해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위로에 나서는 동시에 종단 소속 전국 사찰은 실종자 무사생환 기도를 입재했다. 특히 조계종 총무원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불기 2558년 연등회를 조용하고 엄숙하게 치르기로 결정했다. 지역 불교계는 축제 성격의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를 잇따라 취소하면서 국민적 애도 분위기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승객 477명을 태운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18일 오후3시 현재 사망자는 28명, 실종자는 268명으로 집계됐다. 조계종 긴급구호봉사대는 지난 17일 오후4시30분 진도실내체육관에 도착해 본격적인 봉사 활동을 시작했다. 향적사 주지 법일스님을 비롯한 진도사암연합회 소속 스님들과 신도들, 최종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무국장과 직원 등으로 구성된 긴급구호봉사대는 진도실내체육관 인근에 부스를 설치하고 피해자 가족들을 위해 차와 간식을 제공하며 무사귀환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 조계사는 17일 '진도 여객선 실종자 무사 생환' 기도를 봉행했다. 이날 조계사 대웅전 법당에는 조계사 신도와 시민 등 3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는 "사시기도 등 모든 기도시간에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위한 기도를 봉행하라"는 총무원의 종무지침에 따른 것으로, 기도 정진은 전국 사찰로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한국대학생불자연합회 등 각 단체들도 사망자를 애도하고 실종자의 생환을 발원했다. ▶관련기사 5면

"연등회, 조용하고 엄숙하게"

한편 조계종 총무원은 26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연등회를 실종자 생환과 희생자 추모 분위기로 변경하고 화려한 음악, 율동, 장엄 등을 자제하기로 결정했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개최할 예정이던 각종 문화행사도 전격 취소되거나 내용이 축소되는 상황이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는 연등문화제 점등식을 대폭 축소하는 등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봉축행사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울산불교종단연합회도 법요식과 점등식만 거행하고 시민축하공연과 제등행렬은 하지 않기로 했다. 충청지역 교구본사인 법주사 마곡사 수덕사도 불교의식만 소박하고 엄숙하게 치르기로 결정했다.

또한 중앙신도회 산하 (사)날마다좋은날이 19~20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하려던 대규모 모금행사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을 잠정 연기했다. 날마다좋은날은 "침몰사고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 이웃들의 비통함이 무엇보다 우선하여 해결되고 치유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20일 서울시청광장에서 개최하려던 '대한민국 야단법석' 도 전격 취소됐다. 특별취재팀

진도=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세월호 실종자 무사생환 발원문

모든 생명은 소중한 존재이며, 평등한 존재임을 가르쳐주신 부처님, 머리 숙여 한마음 한 뜻되어 지극한 마음으로 발원합니다.

지난 4월16일 진도 앞바다에서 불의의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생사의 기로에 놓여있습니다. 모든 불자와 국민들의 충격과 슬픔이 너무나 큽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희들은 온 국민들과 함께 세월호 침몰사고 실종자들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한마음 한 뜻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든 생명을 널리 평등하게 사랑하는 당신의 자비와 언제 어떤 경우라도 게으르지 않고, 지치지 않으며 모든 중생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용맹심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부디 부처님의 크나큰 자비와 가피를 주시옵소서.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아픔 치유 화쟁순례단' 실종자 무사생환 기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전국을 돌며 우리 사회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단을 직접 찾아 격려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지난 18일 5·18민주화운동 현장인 광주를 지나 전북 완주에 도착한 순례단을 위문하고, 화쟁적 시각에서 사회갈등의 대안을 마련하는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특히 세월호 침몰 참사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희생자들의 극락왕생과 실종자들의 무사생환을 위해 함께 기도하자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이날 완주군 지역경제순환센터에서 순례단과 만난 자리에서 "여객선 침몰로 희생된 분들의 왕생극락과 실종된 분들의 무사생환을 함께 기도하며 화쟁코리아 순례길을 걸어가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갈등과 아픔이 있는 곳에 몸소 함께하고 있는 도법스님과 화쟁순례단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격려했다. 이에 화쟁위원장 도법스님은 "화쟁코리아 순례는 원효스님의 화쟁사상으로 사회의 당면한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평화롭게 풀어가자는 총무원장 스님의 뜻을 받들어 시작했다"며 "직접 현장에 찾아와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어 총무원장 스님은 만경강 강둑을 따라 완주 비봉삼거리까지 1시간가량 순례단과 함께 걸으며 세월호 실종자의 무사귀환과 이 땅의 생명평화를 발원했다. 지난 3월3일 제주도에서 첫발을 내딛은 화쟁순례단은 약 50일 동안 제주 4·3사건, 여순사건, 거제도 포로수용소 등 역사의 상흔이 남아있는 곳과 밀양 송전탑 건설현장과 진주의료원 등 사회적 갈등의 현장을 찾아 해법을 모색해 왔다.

한편 순례단과의 면담에 앞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정신요양시설 송강정심원을 방문해 자비나눔기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8일 전북 완주에서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단'과 합류,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의 극락왕생과 실종자 무사생환을 기원했다. 사진은 만경강둑으로 출발하기 앞서 발원문을 읽는 순례단.
완주=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기존 선거 한계 극복…여론 수렴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

중앙종회의원과 교구본사 선거인단이 간선으로 선출하는 기존 총무원장 선거제도를 종도들의 뜻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열려 주목된다. 눈길을 모은 곳은 조계종 총무원이 지난 16일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 조계종 제34대 집행부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을 종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제34대 총무원은 종도의 의사를 존중해 '직선제 검토'라는 사부대중과의 약속을 실현해 가고자 한다"면서 "교구본사와 중앙종회, 원로회의 등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관련 규정 개정에도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무원 집행부, 중앙종회, 교구본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총무원장 선거제도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중앙종회 부의장 법안스님의 기조발제에 이어 △준직선제 △완전직선제 △선거인단 축소 △추대제 △선 추천, 후 선출제 등 5가지 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총무부장 종훈스님은 총무원이 제안한 '준직선제'에 대해 "직선제로 가기까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절충안으로 준직선제를 제안한다"면서 "다만 비구니 스님들의 차별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기존 산중총회 구성보다 5% 참여를 늘린 만큼 직선제로 가기 위한 절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총무원의 이 같은 안은 비구니 스님들의 반발을 샀다.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일운스님은 "준직선제, 선거인단 축소, 선(先)추천 후(後)선출 등의 방안은 비구니 참여를 축소하는 만큼 찬성할 수 없는 개선안"이라며 "비구니 승가는 다수 종도들의 뜻을 바르게 전달하는 직선제로 개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완전 직선제'를 주제로 발제한 중앙종회의원 원경스님은 "현행 간선 선거법은 친소, 이해, 계파의 한계성이라는 모순을 벗어나지 못한다"면서 "이에 반해 직선제는 종단 수장에 대한 정당성과 공신력을 확보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종단의 위상과 품격이 향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는 달리 선거를 지양하고 합의추대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원로의원 암도스님은 이 자리에서 "불교가 선거제도로 가다보니 폐단이 나온 만큼 추대제로 총무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면서 "종단이 세속을 따라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불교광장 종책위원장 만당스님은 현 산중총회 구성방식을 중용한 준직선제 △삼화도량 삼화연구소장 법인스님은 비구니 차별 없는 일정 법계 이상 직선제와 후보검증시스템 구축 △고불총림 백양사 주지 진우스님은 현 선거제도의 고수 등을 각각 제안했다.

총무원은 여론수렴 과정, 5월 입법예고를 거쳐 6월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종헌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기획실장 일감스님은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6월 종회를 앞두고 필요하다면 한차례 공청회를 더 여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8면

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

辭 令

홍승도
命 영남본부장
2014년 4월 16일자

총무원장 자승스님 상대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서울중앙지법이 전 포항 오어사 주지 장주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에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 남전스님은 지난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장주스님이 제기한 총무원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지난 11일 기각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남전스님은 "종단에서는 이번 기각 결정을 계기로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34대 집행부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종단 관련 민·형사상 제반 소송을 대승적으로 마무리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며 "종단이 제기한 소를 취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

명문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특별기획 8개면 발행

一心大覺

大聖 석가모니불의 大覺 佛教思想을
宣布하며 기미년 3.1독립운동의
민족대표 33인중 한분이신
용성진종조사의 대각사상·
구국사상·호국사상을 계승합니다.
계승 발전을 통해
불교 정신문화를 선도합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임원 일동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5동 907-2
Tel. (02) 765-2701, Fax. (02) 741-1385

1962년 3월 1일 대한민국 건국 공로훈장 추서
1990년 10월 9일 대한민국 은관문화훈장추서

한국불교
지성화
대중화
생활화의
대스승

백용성
조사

불기 2558년
Buddha's Brithday
부처님오신날

을유년(서기1945년) 8.15광복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백범 김구선생님이 서기 1945년 11월 23일 중국 중경에서 귀국하여, 그해 12월 12일에 용성 진종(白龍城)조사의 창건도량이고 기미년 3.1독립운동의 진원지인 서울 종로 대각사를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등과 함께 방문하여서 불전에 예배하고 용성 진종(白龍城)조사 영정에 예배하면서 귀국인사를 올리며 "용성 큰스님께서 계속 보내주신 독립운동자금으로 나라의 광복을 맞이하는데 크게 이바지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헌 윤봉길 의사를 보내주시어 만대 귀국 충절 순국의 사표가 되도록 하여 주셨나이다" 하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셨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이사장 장산 도업